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2025 사천기지 공군 호국영령 추모행사



공군전우회와 공군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천시와 경남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사천기지 공군 호국영령 추모행사가 9월 23일, 제3훈련비행단 호국영령위령비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서 모 여든 150여명의 전우회원들과 3훈비 장병, 대외기관 대표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가, 조총 발사 및 묵념,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공군을 대표하여 행사를 주관한 이준선 교육사령관 대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순국선열의 피와 희생의 결과로, 우리 후배들은 이를 되새겨 세계적 강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회 이계훈 회장은 추모사에서 “이곳 사천기지 활주로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이 자랑스럽

게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호국영령의 불타는 애국심 덕분이며,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첨단 공군력 건설의 과제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위령비는 6.25전쟁 시작부터 1962년 5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 및 훈련 중 호국의 녀트로 산화하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

자 1962년 건립되었으며, 제3훈련비행단 부대 군사재 1호로 지정되어 부대 확장에 따라 정훈교육관 등에 보관되었다가 2011년 10월 1일 제6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위치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한편, 행사 후 본회 이계훈 회장은 사천시 부시장과 3훈비 부단장에게 각각 기념패를 증정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3훈비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전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되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육해공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 속에 웅장하게 펼쳐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군은 장병 990여명과 장비 100여대를 동원해 국군의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이는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대표 77명 등 4400여명의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최초 공개되어 눈길을 끈 무기체계는 스텔스 능력을 지닌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전장에 먼저 투입되어 선제 타격을 실시하는 ‘소/중형자폭무인기’, AI 자율임

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은밀히 침투해 정찰부터 정밀타격까지 수행하는 ‘다목적스텔스무인기’ 등 무인항공전력들이었다.

공중분열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시작으로 F-16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은 해군 P-8A 포세이돈이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F-15K, KF-16, F-5, FA-50, T-50 등 전투기 편대가 위용을 과시하였다. 공중분열의 대미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장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고난도 기동시범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이 날을 기념하여 만든 특별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영상의 주인공



공은 6.25 전쟁 당시 최초로 100회 출격을 세운 김두만 예비역 공군대장(전 공군참모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생산

현장을 찾아 선진국 대열로 발전한 항공기술력을 확인하고 후배 조종사와 조우하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 제 51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은 7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 51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관행과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을 ‘진정한 국방’이 구현된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국가·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국방개혁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첨단 방위역량 구축과 정신전력 강화가 그것으로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율적인 국방자원 배분과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군을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 군 정찰위성 2·3호기 ‘전투용 적합’ 판정 완료

합동참모본부(합참) 시험평가부가 8월 5일 “SAR 1·2호기인 정찰위성 2·3호기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더 정밀하고 촘촘해졌다.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자산인 정찰위성(425사업) 2·3호기가 잇따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임무에 돌입하면서다.



2·3호기는 합성개구레이다(SAR)를 탑재해 밤낮과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전천후’ 위성이다. 앞서 작전 운용을 시작한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과 중점 촬영으로 영상정보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1~3호기가 모두 작전에 투입되며 우리 군은 EO·IR·SAR 등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 적의 도발징후를 더욱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쏘아 올린 4호기 운용 시험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목표한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계획이다.

##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8월 28일 종료한 ‘2025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우리 군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확인한 전훈 등을 반영한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했다. 육·해·공군은 미군과의 연합훈련도 다수 전개하며 한미동맹 공고화에 이바지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은 올해 UFS 연습에서 우리 군과 한반도 지상·해상·공중 전 영역을 배경으로 광범위한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28일 올해 UFS 연습에 참가한 미군 각 구성군 활동을 소개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보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가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이동 잤은 군인자녀 기숙환경 개선

국군복지단은 7월 21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동이 잤은 군인 자녀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협약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상지역 행복기숙사 두 곳에 군 자녀 약 250명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생 수는 기존 복지단 운영 기숙사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단은 30년째 대구 무열학과 부산 해운학과를 운영 중으로, 이들 기숙사는 올해 문을 닫는다.

새로 입주할 행복기숙사는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깝고 주변에 학원, 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복지단이 행복기숙사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군 자녀는 기존 기숙사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더욱 우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품질 기숙사 시설과 안전하고 전문화된 기숙사 운영서비스를 누리는 셈이다.



## 김명수 합참의장, 공군10전비 현장지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8월 12일 ‘2025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앞둔 공군 장병들에게 “연합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공군10전투비행단을 찾은 김 의장은 공중전력 즉응태세를 점검하면서 “비행단장을 중심으로 장병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완벽한 팀워크를 갖춘 가운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상시 출격 가능한 작전수행태세를 갖추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영공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수행 중인 조종사와 정비·무장요원들을 격려했다.



## 병무청, 군 모집병 선발 개선안 발표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안 (10월부터 적용)

자료=병무청

| 평가항목  | 개선 내용                                                                                                                             |
|-------|-----------------------------------------------------------------------------------------------------------------------------------|
| 자격·면허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 단, 무도단종 등 전투(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 인정                                                                                      |
| 출결·면접 | 출결 및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br>* 출결 : 육군 10~6점 / 해·공군, 해병대 20~1점 → 전군 5~2점<br>* 면접 : 해군 110~100 → 100, 공군 35~25 → 25, 해병대 80~70 → 70       |
| 동점자   |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br>* 생년월일 빠른순(현재) → 무작위 전산순(개선)                                                                   |
| 가산점   | 상한선 축소(15 → 10점), 가산점 항목 간소화(25 → 21항목)<br>* 축소 : 헌혈·봉사(8 → 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br>* 폐지 : (공군)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해군) 직업경력, (해병대) 무도유단자 |

2025년 10월부터 군 모집병 선발 시 임무수행 연관성이 적은 비공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는 내년도 입영일을 올해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집병 선발 개선방안을 8월 7일 발표했다.

먼저 군 임무수행 연관성이 적은 평가항목은 과감히 폐지·축소된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병무청은 10월 모집병 점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단종 등 전투(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했다. 그 상한선도 애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 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되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진영승(공군 대장)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9월 30일 오후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44·45대 합참의장이 취임식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식 이후 진 의장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군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이 국민과 국가만을 위한 임무에 충실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자”며 “합참의 모든 구성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나된 팀워크를 발휘해 시너지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취임 후 바로 맞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에 바로 서부지역 접적지역으로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현장점검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 우주항공청 ‘핵심기술 개발·실증사업’ 발표

우주항공청이 우리의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AAV)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AAV를 도입해 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군처럼 우리 군과의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우주청은 8월 14일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주청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항공청은 2030년에 초도 비행을 시작해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기는 사업 직후 바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민·군 활용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 군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본격화

정부가 우리 군의 우주력 강화를 위한 연구·시험을 진행할 시설인 ‘국방우주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두회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정원 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우주안보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우주시험센터는 발사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뉜다”며 “위성 등 군의 발사 능력을 구비하고, 발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연구·시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국방예산 7년만에 최대 증가

정부가 우리 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전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국방예산을 2025년 예산 대비 5조478억 원 증액한 66조 2947억 원 규모로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증가율(8.2%)은 7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장병의 사기·복지의 중요성은 물론 전투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 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 개선으로 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오른다.



## ‘전투기 엔진 국산화’ 안전성 평가 인증제도 추진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이 국가 주도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감항(운항 안전성) 인증제도 정립에 나섰다. 향후 국산 항공엔진이 만들어졌을 때 실전 적용과 안전성 확보를 신속히 뒷받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은 최근 ‘군용 항공기용 엔진 감항 인증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항공엔진 독자기술 확보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1만4770lbf급)보다 우수한 성능을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엔진 개발 시작시점부터 14년 후에는 실제로 항공기에 장착해 시험 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항공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다.

방사청은 “국산 엔진 개발과 병행한 감항 인증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 추진 및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군용 항공기용 엔진 감항 인증절차 정립과 표준감항 인증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 서울 안보대화 2025 성공적 개최



‘2025 서울안보대화(SDD)’가 9월 10일, 사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폐막했다. 국방부는 이번 SDD로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도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68개 국가·국제기구 국방·안보 고위 인사들은 SDD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주제처럼 행사기간 열린 여러 회의에서는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가국 인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이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된 현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 서울 ADEX 10월 17~24일 개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가 오는 10월 17~2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EX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전시회로 매 홀수년 10월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공항은 ‘서울 ADEX 2023’ 대비 약 58% 확대 운영하고 일산 킨텍스는 4만 9000여㎡로 세계 최대 규모 에어쇼인 파리 에쇼(7만9000㎡)와 영국 판보로 에어쇼(4만 9000㎡)와 대등한 규모로 올라섰다. 특히 킨텍스에는 우주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2260㎡에 달하는 신기술관을 조성한다.

재사용 발사체 실물 모형과 첨단 위성통신, 우주용 탄소섬유, AAM 실물 기체 등을 전시할 예정으로 파리에어쇼 2025의 우주관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킨텍스 야외전시장에는 K방산 수출 장비인 최첨단 방산장비가 대거 전시되고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관련 30여 개의 세미나도 열린다.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취임인사 예방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9월 18일 취임 인사 차 본회 이계훈 회장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본회 부회장과 항공우주주력연구원 연구실장, 그리고 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하였다.

먼저 본회 이 회장은 지난 9월 3일 취임한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고, 손 총장은 감사인사로 화답하였다.

본회 이회장은 예비역 단체의 역할이 군

외부에서 현역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손 총장은 공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예비역 단체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군 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가 공군 발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본회 신임감사 2명 선임

본회 이계훈 회장은 8월 6일, 신임감사 2명에 대한 선임증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당부했다.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는 지금까지 15년 이상 중임을 맡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김영근, 박병철 감사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감사 2명을 선임하게 되었다. 새롭게 선임된 감사는 조광제 예)소장(공사 33기), 윤명근 예)대령(학사 88기)으로 앞으로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감사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확인과 발전계획에 대한 조언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계훈 회장은 선임증 수여에 이은 환담에서 십수년의 긴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봉



사해주시신 김영근, 박병철 전 감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새롭게 선임된 신임 감사들의 투명한 점검과 아울러 전우회, 협회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롤스로이스 인터내셔널 김태우 상무 내방

롤스로이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김태우 상무(공사 42기)가 7월 25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항공우주소년단 및 공사 총동창회, 그리고 공군발전협회를 후원하고 있는 김태우 상무는 과거 공군의 무스탕(F-51) 전투기와 전용기로 사용되었던 HS-748뿐 아니라 현재 C-130H/J 및 글로벌호크 등 다양한 항공기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사를 소개하고 후원협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장은 “꾸준한 후원에 대해 감사하며 좋은 인연으로 공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골프동호회 총무단회의 및 골프대회 준비위 모임

본회 골프동호회에서는 7월 31일 총무단 회의를 진행하여 회원현황 확정 및 골프티배정계획 등에 대한 소개와 각 단체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5일로 계획된 2025년 정기 친선골프대회 계획에 대해 공지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9일, 수원골프장에서 골프대회 준비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경기규칙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글회 이택용 회원이 추대되었고 경기 진행위원으로는 정



우회 김성대, 보급회 심준택, 정통회 신호승, 학사회 홍창표 회원이 수고해주기로 하였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 연구용역회의

본회 소속 공군발전협회는 7월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옥에서 첨단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를 가졌다.

박신규 수석부회장, 윤우 항공우주주력연구원장 및 전문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엔진 소요분석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 항공엔진 국내개발 필요성과 공군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전력구조 구현방향 분석, 첨단엔진 소요분석 결과 및 첨단 항공엔진 국내개발로 인한 기대효과 등이며 결론적으로 차세대 수출산업인 방산분야 핵심 항공엔진의 핵심기반기술 국산화 없이는 방



산수출의 지속 가능성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므로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항공기 유지비 절감, MRO 역량 확대 등 K-방산 수출증대와 국가 기술력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공군발전 협력업체 간담회 성료



공군발전협회는 9월 10일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협력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군발전협회 창설이래 최초로 실시한 행사로 그동안 공군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와 응원을 보내준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와 공군본부 정책실, 기획참모부의 현안설명 등 공군과 예비역, 업체 간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서로 윈윈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계훈 공군발전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평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과 좋은 발표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공군본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군과 업체 모두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자리가 단순한 기억이 아닌 강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소식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2025년 안보현장 견학행사

본회 이계훈 회장은 9월 23일 중앙회 임원/회원 및 전국지부/지회 임원 등 약150여명을 초청하여 사천지역안보현장을 견학했다.

성남기지에서 C-130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천비행장에 도착한 일행은 자가차량 등으로 이동한 남부지역 회원들과 합류하여 제3훈련비행단에서 주관한 사천기지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숭고한 넋을 위로하였다.

이어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KAI 차재병 대표이사의 환영사, 이계훈 회장의 인사 및 방문기념품과 기념품 교환을 실시하고 항공기 생산시설을 관람하였다. 특히 국산전투기 KF-21 제작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진 오찬에서 서로의 추억을 다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새로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윤영빈 청장과 접견을 실시하고 우주항공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군 현역 및 공군출신 직원들의 인사 및 현황 등을 소개받았다.



또한 사천시의 후원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초양도, 각산 등을 돌아보며 남도의 멋진 풍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귀가하였다.